

◇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을 다녀와서



제6기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대협) 출범식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183개 대학 8만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기초 운동선을 물이끼가 잔류한 전대협과 민주정부 수립으로 맞춘 이번 출범식은 29일 오후 10시 출범식 전야제 '시민의 시대'를 앞둔 조국발원지 빛나

反민자 깃발올린 백만의 함성

전대협 출범식 전야제는 전대협 문화운동단체인화, 노래마을 사람들 등의 공연과 제6기 전대협 중앙위원회, 각 부문별 의장들의 소개와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국과 청춘'이라는 주제의 서훈현 문예일꾼의 문화공연이 있는 후 연단에 오른 태재준(서울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의장은 "전대협은 지난 6년간 백만 학도가 하나로 일어난 공동체"라는 전대협의 의의를 밝히며 6시간의 전야제 행사를 마쳤다.

행사기간 이틀째인 30일에는 부문별 행사로써 전국 선전일꾼 전대협, 전대협 출범식 사수를 위한 전국 율동제, 보은·진관 무희석발과 삼복의 복발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모의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등이 교내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노선극장에서 는 '군민주화'를 통한 민주정부수

립에서는 92학번들의 지방의 참여와 전대협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92학번 환영회 한마당'이 3만여 명의 학생들 속에서 열렸다. 계획보다 다소 늦게 진행된 '제3기 조국통일위원회(이하 조통위) 출범식'에서 김영하(중앙대 총학생회장) 조통위 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대회와 군비축소, 단일민주화주국가의 수립, 국가보안법철폐와 통일인사석방 등을 결의하는 조통위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통위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본행사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은 500여명의 동맹과 결속으로 시작되었다. 각 지구대협의 깃발과 함께 지구대협의장의 인사와 제5기 전대협의장 김만대행 이상삼의 이임사가 있던 후 전국연합권총대 상임위원, 유가협 의장

선언문을 통해 제6기 전대협은 학우들의 삶과 생활속에서 함께 하며 더 강화된 조직, 전술적인 건설에 패진할 것임과 전국연합감회와 국민회의 건설로 민주대연합을 건설하여 민주정부수립을 총대진할 것이며 반미자주화 조국통일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행사 마지막날인 31일 대교로에서 가지기로 한 '서울시민 한마당'은 경찰의 완전봉쇄로 장소가 옮겨져 종로로에서 4만여명의 학생들의 가두시위로 벌어졌다.

한편 전대협 출범식 기간 중 교내 곳곳에서는 전대협과 노선을 달린 학생들의 집회가 있었다. 전국 30개 총학생회 연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집회는 전대협의 전국연합에 의한 민주정부수립을 거부하고 민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숨에 달려가리, 사진은 제3기 조통위 출범식 모습

92학번·예비역 한마당등 부문행사 눈길 민중권력·전대협 강화 위한 노선 제기돼

신용관(한양대 안산캠퍼스 총학생회장) 수석대협의장의 사회로

합'을 결의하는 '예비역 한마당'이 열렸고, 같은 시각 통합운동

박종철 아바님 등의 유가협·민가협 인사들의 소개와 격려사가 있었다. 다음으로 빈 아프리카 학생기구(IP.A.S) 소속원인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도널드 람폴 토씨가 제6기 전대협 출범식 축하 사절로와 눈길을 끌었다.

전대협 출범식을 맞아 수여된 영웅상은 속초 동우전대협 정영선 학우와 송산대 박현민·이상열 학우 그리고 이치문공회기 수상했으며, 공로상으로 제5기 전대협 중앙위원회가, 모범상으로 결의대 환경학과·인한대·청주전대협·광주전대협이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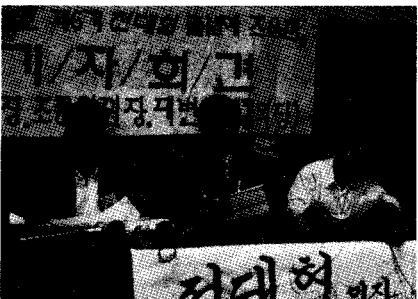
8만학도의 우렁찬 함성을 받으며 나온 태재준 의장은 출범

본회의 무분별한 수업을 비판한다는 '민중의 독저지 정치 개혁회'와 전대협 문화국의 출범을 문예실현 촉구를 위한 전국 문예일꾼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다음날 30일에는 '민중투쟁과 연대의 전진'을 위한 결의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주최한 '전대협과 민주적 강화와 올바른 대선 방향 수립' 촉구를 위한 전국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있었는데 이 결의대회에서 혁명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보수정치의 종식과 민중대통령 추대에 의한 민중정치 실현을 촉구했다.

〈특집부〉

기자회견
참석자
태재준 (전대협 의장)
김정기 (전대협 대변인)
최종원 (대경총련 의장)



'전대협 출범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30분 한양대 학생회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회견은 태재준 전대협의장과 김정기 전대협대변인, 최종원 대경총련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협 출범식 분가, 서울시민 한마당 일천봉쇄와 빈 아프리카 학생기구 도널드 람폴 토씨 수배조치에 대한 규탄성명, 지난 26일 발생한 계명대 화재 사건과 관련한 대경총련의장의 시간개요 발표가 있던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대협 출범식 분가에서 김대변인은 예년보다 많은 인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함으로써 대중적 조직확보에 큰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행사진행에 있어서는 시간개요와 그에 따른 분일토의 시간과 부속이 아쉬웠으나 지역별 모범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계명대 화재발생과 관련해 최종원 대경총련의장

은 시간개요와 있어 언론과 외국 관파보도를 규탄하고 언론과 경찰측의 학생운동권 탄압 책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반 화제사건의 확산원인인 화제발생지가 넓은 폭재전투였다고 소행사실과 비상탈출로가 없는 등 화교측의 단일한 행동체제이다'라고 말했다.

화와 집회가 있었는데 이에 관련한 사건보도와

이들 분열상으로 인식하는 학우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자는가 라는 질문에 김대변인은 '주변에 화와 폭력화'를 공식화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보다

고 물리적 자치또한 하지 않았다. 배상을 할만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중적 인식공유를 위해 조통위의 구체적 고민내용으로 계속적인 대중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김대변인은 밝혔다.

(정리:김영환 記者)

別風

'다윗의 돌은 돌이 아니다'

문제) 다음 중 사회 지도층 인사들 고르시오.

가)국회의원 나)재벌 대)군장성 라)연립사자 출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진 고민을 한 지도 도른다. 분명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일직부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잠시 미루어 두고 몇가지 문제에 대해 작은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말에 집착해보자. 이 말은 단지 오늘날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다. 옛부터 사회지도층이란 말은 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일컬어 왔다. 일반 언론매체에서도 이러한 범주의 뜻으로 이 말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현재 언론매

체에 비치는 사회 지도층 인사는 뉴스의 대상이다. 즉 스타들에게 둘러싸여 세간의 입담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분류 기준은 단지 ①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②돈이 많은 사람으로 변색한 듯한 느낌을 받쳐낼 수 없다.

며칠전 발표된 홍화본로 조성자 명단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들은 모두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말로 각 언론에 표현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이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인가 묻고 싶다. 적어도 그 명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떠나서 이 시대의 거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회 지도층 인사' 어떤 스타들의 대상이 된다면 이미 그는 자신에 대한 명제를 거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스스로 명제를 거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왜 도출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다.

조금 돌았던 것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권력주의·권위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듯하다.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세력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는 것일 뿐이며 세력은 인간 행위의 주변에 있는 부차적 요소일 뿐이다.

관료주의·권위주의는 민주주의에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다. 어긋나고 만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옷의 맛을 뒤흔들 사람의 품위까지 흔들바질시키고 만다. 이때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존재 가치조차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 땅에 내비쳐진 오늘날의 민주주의

를 염념나게 거대한 물리력에 비유한다면 권위주의·권위주의는 다윗의 손을 때나 팔리에게 날아가고 있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2) 다윗이 팔리에게 한해 돌을 던졌다. 돌이 깨질 것인가 팔리에게 머리가 깨질 것인가?

가)돌 나)팔리에게 머리 거두칠마하고 이제 문제 1, 2의 답을 내려보자.

1번 답)답 없음. 그들 모두 각자의 정의로운 명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2번 답)문제가 무의미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돌은 날아가는 것 자체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돌을 던진 다윗만이 이 땅에 실 것이다.

〈李鍾〉

‘풍파에 놀란 사공 배팔아 말을 사니...’



극동정유는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지금 더 큰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풍파가 무서워 배를 때는 사공만 있다면 인간은 영원히 바다로 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공, 풍파를 이기기 위해 노련한 기술과 더 큰배를 만들려고 하는에서 인간의 문명은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극동정유는 시련을 피하기 보다는 그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참된 기업정신이라 믿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동정유주식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중로구 내곡동 2231 세암빌딩 / 대표전화 : 735-6300